

점유율 80% ... 車카메라 압도적 1위 엠씨넥스

성장기업의 비결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주요 정보기술(IT) 업체가 전기장치(전장) 부품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안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분야여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완성차 업체에서 제품 인증을 받는 데만 3~4년이 걸리기도 한다. 엠씨넥스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국내 1위 업체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물론 볼보, 중국 지리자동차 등이 주요 고객이다. 최근 애플이 2024년께 자율주행 전기를 출시할 것인 소식에 엠씨넥스도 주목받고 있다.

◆CES에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 선택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전장 카메라는 100% 엠씨넥스가 공급하고 있다. 엠씨넥스는 지난달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에 적용하는 카메라 센싱 기술을 선보였다. 넓은 각도 범위를 커버하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 150m 거리의 사물을 자동 인식하는 기술 등으로 자율주행 '레벨3' 정도의 성능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민동욱 엠씨넥스 대표(사진)는 "자동차산업이 자율주행 시대로 급속히 바뀌



현대차 제네시스에 100% 공급 볼보·중 지리차도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도 성장세 경쟁력 원천은 R&D 인력

고 있어 전장사업도 매년 20~30% 성장하는 추세"라며 "전장에서만 지난해 1700억원, 올해 2500억원가량 매출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과 손잡고 고화소 카메라, 자율주행 시스템 등도 개발 중이다.

엠씨넥스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다. 창업



엠씨넥스가 베트남에 조성한 생산 공장

초기부터 꾸준히 개척한 분야로 전체 매출의 88%(작년 3분기 기준)가량이 스마트폰용 제품에서 발생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트립 카메라 등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오토포커스(자동 초점 맞추기), OIS(손떨림 방지) 등 구동계(액추에이터) 사업도 확장 중이다. 민 대표는 "카메라 모듈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구동계 사업까지 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엠씨넥스는 이 같은 솔루션이 있어 원가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엠씨넥스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2019년 매출 1조원을 넘었다.

◆'베트남 내 번째 공장 증축'
엠씨넥스의 경쟁력은 강력한 '맨파워'에서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본사의 약 500명 직원 중 320명가량이 연구개발(R&D) 인력이다. 최근 몇 년간 사업

구조를 수직계열화한 데다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를 늘려 원가 경쟁력을 키운 점도 도움이 됐다. 민 대표는 "연구 인력은 대부분 국내에 있고, 베트남 인력에는 늘어나는 제품 수요에 대응해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했다"며 "2019년 말 베트남에 총면적 4만8000㎡의 3공장을 준공했고, 4공장도 증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현대전자, 팬택엔큐리텔 등에서 휴대용 연구개발 엔지니어로 일하다 2004년 엠씨넥스를 창업했다. 당시만 해도 국내의 휴대폰 업체가 일본 카메라 모듈에 대부분 의존하던 시절이었다. 카메라 모듈 국산화에 집중한 뒤, 개발 제품을 일본 중국 등에 판매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삼성전자 1차 벤더로 등록돼 관련 부품을 납품했고, 201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재활용 쉽고 원가 낮추고... 포장재 업계 '친환경 바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새벽배송 등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포장재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포장재업계는 보존 기능이 우수하면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포장재를 앞세워 제품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SR테크노팩은 친환경 산소 차단 코팅 필름 GB-8을 국내외 RTD(바로먹도록 포장 음료) 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GB-8은 특수 기술을 적용한 폴리비닐알코올 코팅액을 플라스틱 등에 도포해 제조한다. 기존 코팅필름보다 산소 차단 효과가 세 배 이상 높으면서 가격은 수입 코팅필름보다 25%가량 저렴한 게 특징이다.

GB-8을 적용한 RTD 컵커피 라벨(사진)은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재활용할 수 있다. 내용물 보존을 위해 알루미늄박을 적용한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이 불가능해 폐기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SR테크노팩 관계자는 "지난해 네스카페, 서울우유 등 국내외 6개 회사에서 GB-8을 통해 약 1350t의 폐기물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BGF에코바이오는 지난해 12월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폴리락타이드(PLA) 발포 시트를 선보였다. PLA는 사탕수수 옥수수 등 식물성 재료로 제조한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특정 조건의 토양에서 스스로 썩는 친환경 소재다. 이 회사는 2017년

항균 기능이 있는 특수 PLA 기술 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약 3년의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항바이러스 PLA 발포 시트 개발에도 성공했다.

PLA 발포 시트는 최근 정부출연기관의 항바이러스 실험에서 2시간 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을 99.9% 사멸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BGF에코바이오는 "달걀 유통 과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 우려를 줄이는 등 식품 위생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솔제지는 독자적인 특수 처리 코팅 기술을 종이 소재에 적용한 친환경 포장재 '프로테코'를 생산하고 있다. 종이 표면에 코팅 막을 입혀 산소, 수분, 냄새를 차단하고 보존 기능을 개선한 제품이다. 플라스틱 필름 또는 알루미늄박을 두세 겹 접착하는 다층 포장 방식과 달리 종이 소재 하나로 포장재 생산이 가능해 제조 원가 절감 및 공정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코로나 특수에 대박 난 '딘에어 공기살균기'



생활가전기업 디에어코리아는 2019년 1월 공기청정기와 살균 기능이 모두 있는 '딘에어 공기살균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으로 지난해 매출 20억원을 달성했다.

2040 여성 소비자에게 특히 높은 인기를 얻었다. 지름 43cm, 높이 19cm짜리 원형 디자인도 호평받은 요인으로 꼽힌다. 이형수 디에어코리아 대표(사진)는 "여성들이 쓰는 콤팩트형 파우더에서 착안해 동그란 모양의 예쁜장 공기살균기를 개발한 것이 시장에서 통했다"며 "설계가 어려워 기존 가전기종들이 꺼리던 원형 디자인을 고집한 것이 빛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교육 분야에 16년간 종사했다. 그러다 2013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계기로 살균제 없이 돌아가는 살균기를 만들어보려겠다는



공기청정·살균·집진 한번에 2040 여성 소비자 취향 저격

생각을 했다. 2015년 디에어코리아를 설립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살균과 공기청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필터를 갈아 공기청정과 살균, 집진(먼지를 모으는 것)을 모두 해결하는 다용도 공기살균기는 그렇게 나왔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살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공기살균기의 항바이러스 성능이 이목을 끌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 결과 88.5%의 부유바이러스 저감 성능을 인정받았다. FIT시험연구원 항균 테스트에서는 99.9%의 항균 기능을 입증했다.

딘에어코리아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민간과 정부를 포함해 19억5000만원에 달한다. 디에어코리아는 2월 ADT캡스의 방역 서비스 '캡스클린케어'에 40억원어치 물량을 공급한다. 최근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2021 CES'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베트남, 영국 등으로부터 수출 제한 관련 연락도 받았다.

이 대표는 "조만간 바이러스 제거에 특화된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직수형 가습기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에이비엘바이오 항암제 美 1상 승인

에이비엘바이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이종항체 면역항암제 'ABL503'에 대한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이종항체 후보물질로 임상에 들어가는 이 회사가 처음이다.

임상 1상은 미국 내 6개 임상전문기관에서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ABL503 단독 요법의 내약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ABL503은 PD-L1(암세포 표면 단백질)과 4-1BB(면역기능 활성화 인자)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종항체 물질이다. 나스닥 상장사인 아이맵바이오파마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4-1BB 항체는 항암 효과는 뛰어나지만 심각한 독성 부작용이 발생한다. BMS와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들도 임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4-1BB 항체의 독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 미세환경에서 암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그램바다-1' 이종항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조만간 다른 이종항체 면역항암제에 대한 임상도 FDA에 신청할 계획이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SK바이오 코로나 백신 '산뜻한 출발'

동물실험서 효과 확인 임상 1상 환자 집중 시작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워싱턴과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첫 환자 집중(임상 1상)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항원 단백질 설계를 맡은 네일 킹 워싱턴대 교수팀은 지난 28일 연구실 트루터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GBP510은 지난해 12월 국제민간기구인 전염병대비역신연합(CEPI)이 "차별화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돕겠다"며 시작한 'Wave2' 프로젝트의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물질이다. CEPI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빌&멜린다게이츠 재단이 지원한다.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제조법 백신이다. 부작용이 적은 대신 면역반응이 낮은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여한 단백질이 혈액

내의 다양한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기 때문이다. 킹 교수는 "나노입자를 이용해 지지체 역할을 하는 스키펴드 단백질"을 만든 뒤 여기에 코로나19 인자 효용기 수용체에 결합하는 부위(RBD)의 단백질을 올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킹 교수는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쥐 동물모델에서 스키펴드 단백질에 이용하면 RBD 단백질만 투여했을 때보다 5배 적은 용량으로 10배 이상의 중화항체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27도의 상온에서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용화되면 각각 영하 20도,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모더나 및 화이자의 mRNA 백신보다 훨씬 간편하게 유통할 수 있다."

고규영 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연구단장은 "실험 결과로만 보면 현재 개발된 백신이 가진 부작용이 GBP510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망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hankyung.com

올해도 2,158개 기업이 선택한 현대백화점 명절 선물

기업 고객 인기 상품 2020년 추석 판매실적 기준

현대 화식한우 축반
440,000원

다다익선 세트
150,000원

죽염으로 만든 영풍 침술비
130,000원

선물 전용 상담 컨시어지

전문 바이어의 1:1 맞춤 상담, 방문 없이 편리한 주문 및 결제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H.Point 앱 설치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디현대쇼핑 | 현대홈쇼핑 | 현대Hmail | 현대백화점멤버십 | 한림 | 디현대쇼핑 | H메뉴얼 | 현대리베르 | 현대리얼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회